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는 어진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다면 그야말로 바보중의 바보이다.

(法句經·우암품 6절)

東大新聞

발행 주일 휴간
편집 인민
인간 건강
민중 희망
민중 희망
민중 희망
민중 희망

과년 곳: 동국대학교 공대신문사
100-715 서울 중구 필동3가26(2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707(241-4132)

제 1101호 (주간) 1964.1.1 창간 동국대학교 창간 30주년 기념(74)날인기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2년(단기4325년)5월20일 (수요일) [1]

목격대동제 "학생들의 어우러진 총화의 장으로"

통일다짐 위불놀이·동국인 한마당 등 펼쳐

서울캠퍼스 '92목격대동제가 오늘(20일)부터 3일간 교내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관련기사 12면)

'승리의 확산은 동아로부터'라는 주제로 학생회 사업의 총화의 장이 될 대동제는 총학생회 기획행사를 비롯해 각 단위 학생회에서 기획한 행사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번 대동제는 학생회의 대중참여를 위해 단체·과행사가 많이 열리게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왜곡된 추계문화를 바로잡고자 총학생회의 차진들

이, 학복위가 주최하는 위불놀이 등의 민속놀이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종차마시기도 열린다. 특히 예년 대동제에서 예비역학생들의 참여의 장이 적었던 것을 감안해 사범대, 농과대, 이과강좌 등에서 예비역에 한해 족구대회의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선학회는 불교 용품을 팔경도에서 판매한다. 또한 심우정에서 전통차 및 다기를 전시·판매한다.

국보법철페를 위한 금서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은 국보법철페 기금마련에 쓰인다. 정치외교학회는 21일 오후4시 교수, 학생이 함께 모여 민속놀이를 실시한다.

경영학과는 지난달 30일 전민학원사건으로 구속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정태(경영 1)군의 영지금마련을 위한 주점과 백혈병으로 휴학한 하승구(경영 2)군을 위한 헌혈운동을 벌인다.

무역학과, 회계학과는 각각 20일과 22일 동국관 옆 잔디밭에서 파단합대회를 갖는다.

예비역협의회가 '여학생간담회와 여성문제 비디오 상영'등의 이색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김제국형식을 위해 연방계 통일방안등 조국통일을 주제로 '모의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를 꾸민다.

이밖에도 문학작품공모전, 우리학생의 사진전 및 전대협 사진전, 무장비디오상영 등도 기획·진행된다.

대동제 기간중 특집 등그림, 만화열, 컴퓨터 연구회에서 각각 전시회를 열어 동국문화회는 21일 오전 10시 '애국열사 추모 백일장'을 개최하고 시화전도 갖는다.

21일 양일간 대운동장 입구에 종교의류, 무공해상품등을 중심으로 알뜰시장을 마련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불교대의 공동으로 전종차마시기를 갖고 공해추방사진전도 개최한다.

한편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교수, 직원, 학생이 하나되어 즐기기, 바구니뜨기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꾸는 '동국인 한마당'은 마지막날인 22일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예비역들이 참여하는 '통일

다짐 족구대회'가 열리며 여성문제인식 폭을 넓히기 위한 '여학생간담회와 여성문제 비디오 상영'등의 이색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김제국형식을 위해 연방계 통일방안등 조국통일을 주제로 '모의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를 꾸민다.

이밖에도 문학작품공모전, 우리학생의 사진전 및 전대협 사진전, 무장비디오상영 등도 기획·진행된다.

대동제 기간중 특집 등그림, 만화열, 컴퓨터 연구회에서 각각 전시회를 열어 동국문화회는 21일 오전 10시 '애국열사 추모 백일장'을 개최하고 시화전도 갖는다.

21일 양일간 대운동장 입구에 종교의류, 무공해상품등을 중심으로 알뜰시장을 마련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불교대의 공동으로 전종차마시기를 갖고 공해추방사진전도 개최한다.

한편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교수, 직원, 학생이 하나되어 즐기기, 바구니뜨기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꾸는 '동국인 한마당'은 마지막날인 22일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예비역들이 참여하는 '통일



△5·19인자당 전당대회를 맞아 분교생을 비롯한 서촌권 소속학생들은 충로동지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관련기사 11면)

동발위 1차회의 소집

수익사업체 경영방안 논의

동국발전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오는 21일 타워호텔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수익사업체의 실질적인 수익화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 구성된 동국발전위원회는 21일 양일간 대운동장 입구에 종교의류, 무공해상품등을 중심으로 알뜰시장을 마련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불교대의 공동으로 전종차마시기를 갖고 공해추방사진전도 개최한다.

한편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교수, 직원, 학생이 하나되어 즐기기, 바구니뜨기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꾸는 '동국인 한마당'은 마지막날인 22일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예비역들이 참여하는 '통일

수습기자 추가 모집

대학인문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명으로 파헤쳐 나갈 의의있는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명
②응시자격: 1학년 남·여재학생
③모집분야: 일반 및 사진·만화기자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⑤면접시험: 서울 5월 27일(수) 오후4시까지
⑥시험일자: 서울 5월 28일(목) 오후5시
⑦시험과목: 1차 필기-상식·작문
(단 사진·만화기자 응시자는 1차 필기)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학원관 J201(서울캠퍼스) 원호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동대신문사 —

△대동제 주요행사 일정 및 내용

날짜	시간	행사	장소	주최
20일	12시	대동제 김놀이	관해광장	총학생회
	오후 1시	전우귀곳	"	서초동 꽃마을
	2시	대동제 개막식	"	총학생회
	6시	통일다짐위불놀이	대운동장	학복위
	6시30분	"단원교문을 열며" 영화 상영	관해광장	예술대
21일	오전10시	애국열사추모 백일장	관해광장	동국문화회
	12시	응원대제전	"	학복위
	오후 2시	김진관 보는 모의제관	관해광장	백상
22일	3시	참교육을 위한 노래	관해광장	사범대
	5시	가사 바퀴부르기 대회	관해광장	D·U·B·S
22일	12시	동국인 한마당	대운동장	총학생회
	오후 4시	통일 7종 경기결승	관해광장	"
	오후 5시	차진놀이 및 대동놀이	대운동장	"
	5시	폐막식	"	"

보리수

소송불교의 인식론이라 할 수 있는 俱舍論에는 많은 지옥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은 불교의 우주관과 인생관을 인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의 설정이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갖는 교훈적 의미가 주목을 끌게 한다. 즉 불교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몸의 세계를 떠나 樂의 세계에 이르러 고쳐주는 것이나, 합을 강조함에 의하여 몸의 고통을 질설하게 인식함으로써 몸의 세계를 떠나려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스크라테스는 모르는것을

안다는 사실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우리 속담에 窮則變이란 말이 있다. 이들은 모두가 역설적인 논리로 이해되지만, 무지와 고통의 세계를 극복하는 데 강한 힘을 부여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

지옥의 고통

생각되어 그 속뜻의 의미에 쫓겨난다.

한편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오늘의 우리 고통이 무엇이며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사회병세가 어떤정인가를 입으로는 끝 잘

있고 있지만 그 고통에 대한 간절한 마음가지이 없기에 그것을 고쳐려는 간절한 권력을 지닐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고쳐주는 同體大觀과 그와 같은 것이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대정정과 남북통일의 대열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고뇌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슬한 고뇌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가짐속에서 배대되고 있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간절한 고뇌야말로 그를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서원을 할 수 있고, 그와같은 서원이 있고서야 강한 실천의 의지가 발현된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洪潤植

선학장학금 전달

정각원, 연등보시금으로

정각원(원장=최현각·선학)에서는 지난 18일 오후3시30분 총학생실에서 9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되는 선학장학금으로 3백66만70원을 전달했다.

이날에 전달된 선학장학금은 지난해 2학기 선학과 신입생 선발을 일반·승려학생은 5대5 분리사?하는 대신 92년 2학기부터 성적 B학점이상인 일반 학생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신설된 장학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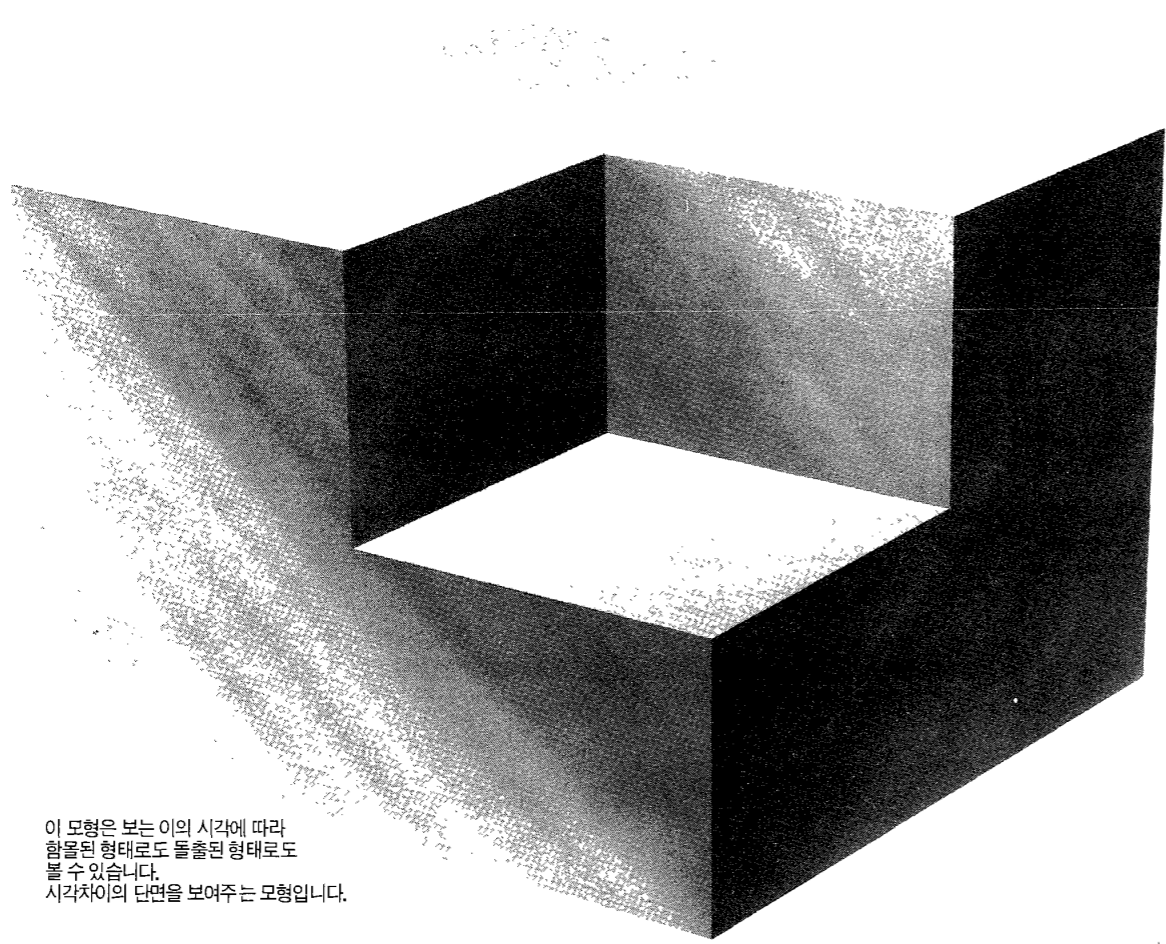
하지만 선학장학금이 학교당국으로부터 마련되지 못하고 정각원에서 불기 2536년 부처님오신날 불전금 및 연등공양보시금전액으로 대체해 이후 장

레슬링부 메달 획득

레슬링부는 지난 16일에 막을 내린 제16회 대학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2, 은메달 2, 동메달 2의 성적을 거뒀다.

자유형에 출전한 문정관(체교3), 최동자(체교2), 김현수(회계2)등이 각각 금·은·동을 획득했고, 그레프로만형에 출전한 이영성(경제1), 이태길(체교3), 이봉환(회계2)군도 각각 금·은·동을 차지했다.

미원그룹 新思考力/2000년대 NEW VISION



“남들이 생각치 못하는 면을 본다.”

저희 미원그룹은 겉으로는 조용한 기업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늘 혁신의지가 가득하고 있는 진취적 기업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사고력—미원가족 한명한명의 신세대 신사고력이 바탕이 되어 미원그룹은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며 이룩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신사고력이 첨단산업분야에서는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유전공학, 의학, 전자, 정보, 정밀화학에서부터 건설, 무역, 서비스, 호텔, 레저분야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창조외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New Vision New Leader 미원그룹—2천년대의 뉴·비전을 제시하는 첨단 신사고력으로 지구촌을 무대로 뽐내겠습니다.



●식품: (주)미원, 미원식품(주), (주)베스트푸드미원, (주)제일농장, 미원음료(주), 미원수산(주), (주)화영 ●화학: 한남화학(주), 중림화학(주), 내소날합성(주) ●금융: 대한투자금융(주), 서해창업투자(주) ●건설·기계: 한남개발(주), 미원중기(주), 한일계장공업(주) ●무역·유통: 미원통상(주), 미성교역(주) ●호텔: (주)미리안 ●정보통신: 한남정보통신 ●공익법인: 미원문화재단, 세림복지재단 ●해외법인: P.T. MIWON INDONESIA, P.T. INDOMIWON CITRA INTI, MIWON USA, MIWON JAPAN, MIWON HONGKONG

사설

동발위에 당부한다

동국의 자주적 중흥을 위한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재정확보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국발전위원회(이하 동발위)가 제안한 학교당국이 주축이 된 가운데 구성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로 개교 86주년을 맞이한 본교의 경우 이전까지 학교발전 계획을 위한 여러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해 왔지만 실질적인 논의의 축적물은 쌓이지 못한 채 기성사실이다.

동발위가 향후 추진할 사업들은 재단수익사업체의 건전한 경영과 수익성 제고, 교육시설의 개선과 추가확보 등 일반현황을 설명 및 검토하는 것으로 요약한 재정의 확충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 4월 동국대총장 취임 후 재단수익사업체와 학교 학생들은 소위 '동발위' 구성에 있어서 양측 공히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재단이 주축이 된 동발위 구성은 총학생에서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 이에 대한 불협화음의 소리를 다분히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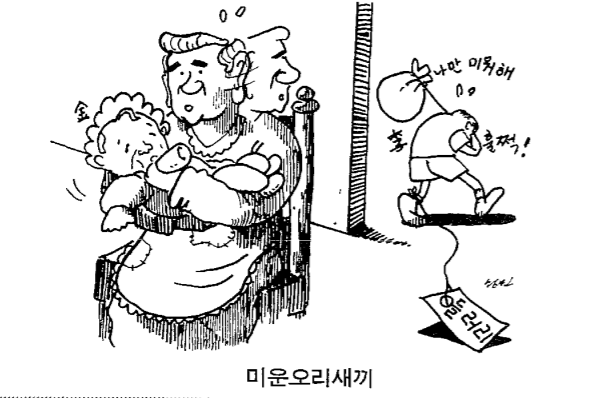
이전의 88년 학원자주회투쟁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생·학교·재단 등 3구체 동맹하는 공간속에서 학교발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동발위 구성을 합의해 놓고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을 보아왔다.

동발위 구성을 학교당국과 약속해 놓은 상태에서 이후 학생들의 준비비준과 논의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이번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학생회는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당국과 재단을 힘있게 추동하지 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점을 하투측이 보완·수정해 내면서 동국발전의 열망을 한시가지 상실하는 것이 아닌 메시가 일상사업에서 충분히 고민해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왕의 동발위는 물론이고, 재단·학교당국 그리고 학내구성체 주체들의 참여속에서 포괄적이면서도 실질적이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동국발전추진하는 조직체 건설이 요구된다.

동발위가 구성되었다는 그 자체로서 학교발전이 해결되었다고 안주해서는 안된다. 이를 통해 동발위가 형식적인 기구차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미운오리새끼

열린글터

학교 상징 '도서관' 사랑은 우리 몫

얼마전, 벚꽃, 개나리, 라일락이 음악의 교정을 수놓았다. 이런 카시카웃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온 동아를 감싸고 있다.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모든 동학인들이 노력해야 한다. 권리를 요구하기에 앞서 의무와 본분을 다하는 것이 참다운 지식인의 모습이다.

도서관이 집에 있는 공부방이라면 바닥에 침을 뱉고 휴지를 버리고 귀가시에 공부한 자리를 정리하지 않고 휴게실에서의 지저분한 행동 등을 할 수 있을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도서관을 올바르게 이용한다. 하지만 일부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도서관이 불편해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준다.

그럼, 우리 학교 도서관을 살펴보자. 한국 최대의 불교서적 보유, 선배님들의 체제가 어려웠던 시절 물품 등 공정한 면도 있지만 좁은 열람실, 심각한 환풍상태, 노후된 시설물, 협소한 휴게실을 떠올려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더 나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모든 동학인들이 노력해야 한다. 권리를 요구하기에 앞서 의무와 본분을 다하는 것이 참다운 지식인의 모습이다.

이런가도 싶지만, 그만큼 복사는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히 다가와 있다. 학문을 탐구한다는 뜻인 대학 내서 오늘날에 있어 복사의 위대함은 새삼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대답은 현재 4기 단대간의 원칙에 의해 단대별 게시판과 단대학행회가 설정한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대자보의 것은 부작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그쪽 나름의 원칙을 분명히 잘라 말한다.

그런데 복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복사의 위대함은 새삼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국관내의 복사의 중심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수업참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학우들의 협조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김만태 (사회대 사회학과)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즐거이는 대자보

대학인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목소리를 가장 손쉽게 담아내는 데 보편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것이 대자보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내 대자보가 된 채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대자보에 관한 대자보가 부족한 지 하루 만에 분실되었다. 그것이 비록 중요한 과내의 사안들을 알리거나 정치적인 선전등을 담은 대자보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붙인 쪽에서는 꽤나 신경을 쓴 중요한 대자보인데도 불구하고 분실된 대자보의 행방을 찾다가 우선 근저의 단과대 학생회실에 문의를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대답은 현재 4기 단대간의 원칙에 의해 단대별 게시판과 단대학행회가 설정한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대자보의 것은 부작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그쪽 나름의 원칙을 분명히 잘라 말한다.

그런데 복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복사의 위대함은 새삼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국관내의 복사의 중심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수업참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학우들의 협조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김후일 (예술대 미술학과)

지나친 동대신문을 읽다

학술적인 기사에도 충실했으면

지난3월 교정에 첫발을 디딘 이후 동대신문을 비롯한 타학보를 접하게 되었다. 처음엔 별생각없이 보다가 조금 익숙해지고 제법 재미가 붙었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목 먹골

안녕하십니까? 봄날의 따듯함속에 저희 현대과학 연구회는 그간의 부진한 활동을 극복하고 동아리방을 학생회관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동학 광장

10시 교문 앞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특히 뚝방기 기창, 창비, ※회비 5천원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온 방골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이런 특수한 전공분야에 대한 기사나 학내 학우대응이 풍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체아래에 다 단과대에 속한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을 채택하여 기사화하는 방안을 진언한다.

보수와 개혁 이미지 조화에 주력

92 대선을 전망한다

2)야당의 대권 전략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대선을 앞둔 각 당의 발걸음이 분주하고 벌써부터 열기가 치솟고 있다. 민주당의 이종찬 후보는 전당 대회를 이틀 앞두고 불꽃같은 경선 과정을 이유로 '달려라 경선'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민주당은 김대중 대표가 출마선언을 한 것이 이어 이기택과 후보경합을 치를 예정이다. 한편 국민당은 지난 15일 전당대회에서 정주영씨를 압도적 표수로서 단일후보로 추대하여 대권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걸고 있다.

이렇듯 대권을 둘러싼 정당인구의 사정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시시각각 격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당내 권력투쟁의 복잡다단함과 역동성에 비한다면, 제도권 야당의 모습은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난다.

민주당의 경우 25,26일 전당대회에서 경선을 예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김대중 중심의 당내구조상 김대중씨의 출마가 가망사실화될 것이고 그러한 한에 있어서 이날 대회의 경선은 모양 갖추기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당 역시 거의 만장일치를 정주영씨의 대통령후보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고, 남은 기간 '정주영대통령인물'의 이미지 작업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신정당의 경우 총선의 참담한 결과로 아직 대선에 대한 구상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나름대로의 구도와 전략을 가지고 대선에 임하겠지만 전체 정치흐름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민주당과 국민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민주당은 어떠한 전략과 방침을 구사하고자 하는가? 김대중씨는 5월호 '월간 민주광장'의 한일 교수의 대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온건중도 개혁노선'을 표방하여 왔던 절에 비추어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은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만큼 뚜렷한 색깔을 지니지 못한 채 정치적 역관계에 따라 특정 경향이 강화 혹은 약화되는 식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왔던 점에서 볼 때, 최근의 경향은 총선에서 보수적 인사의 대거공천과 선거공약 정책에 있어서 절적 자백성이 보이지 않는 데서 드러나듯이 민주당의 보수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물론 범민주권정당임을 자임하는 민주당으로서의 당장에 보수화향의 일면도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개혁적 성격을 부각시키고자 할 것이라는 점과 노선에서 볼 때 보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지하지 못한다면 대권에서의 승산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특정 시점에서 그리고 국민당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속성 상으로 볼 때, 국민당과의 정책적 차원의 연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무정선거에 대한 대서는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유력한 사안이 될 것이다.

14대 총선의 눈부신 활약(?)으로 부상한 국민당은 '깨끗한 정치'와 '참신한 인물등용'이라는 기치아래 '경제난국의 해결사'이자 새로운 정치대안으로 자리잡고 나섰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당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같은 결과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 그리고 '야파트 반값 공방'이라는 파격적인 선거공약도 중요한 몫을 하긴 했겠지만 무엇보다 여야를 불문한 제도 정치의 불신과 부패에 기인하고 있

력 완화와 재벌의 여신 관리 철폐 등 정부개입 축소와 시장기능회복에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자본가 계층의 이해에 반하는 상속 증여세 강화, 일당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는가 하면 민주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의 확대, 노동자의 단결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말반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5월15일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내부를 정리하고 정주영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하고 있는 국민당의 기본전략은 일당소득세 무소속 당선자를 흡수하여 당내의 기반을 확고하고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대안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국민당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또한 한 야당이라는 위치 속에서 정적 혼란, 경제난국에 대한 현정권의

민주 개혁적 성격 부각 국민 정책 공약...대안 제시 미국의 지배전략...민자·국민 합당 가능성 배제못해

에서 "우리 당의 대안은 중도정당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 제계이념대결이 해소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의 정치이념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문제를 탈피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실현과 경제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확립, 군의 정치적 중립과 사회적으로는 중산층과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의 정책노선이다. 물론 지금까지

물론 이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를 의식한 득표전략의 한 편이기도 할 것이다. 또 그것은 민주당이 놓여져 있는 중소자본가와 중산층 중심의 사회경제적 기반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의 보수적 경향은 무엇보다 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역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보수화 추세의 영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민주당은 중도노선 개혁을 통해 노동자 농민 등 기층대중을 물론이고 중소자본가와 중산층을 포괄한다는 구상과 함께 또 하나의 축으로서 범민주권정당으로서 지역당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문제가 남아있다. 민주당과의 야권통합으로 의향상으로는 단일 야당의 형상을 구상했지만, 14대 총선의 결과는 여전히 지역당의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대중씨에 대한 거부감이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으로 상당부분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적 한계는 근본적으로 지도력의 교체 속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김대중씨가 민주당 후보로 기정사실화되어가는 마당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 지역적 한계를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로 전환시켜 민자당이나 국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야권 단일의 수권 민주정당으로서 '개혁적 성격'을 부각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내 진출한 내야 출신의 진보세력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또하나 중요하게 염두 해두고 있는 것은 권력의 개인과 집단·부정선거의 방지인데, 이것을



◇야당의 대권집주도 가속화되고 있다. 민주당의 경선은 '모양 갖추기'에 불과하며 국민당은 총선때처럼 경제난국에 대한 현정권의 무능력과 기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진행시키며 '대안 있는 정치세력'의 실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에 고무되어 국민당을 현재 국민당 수권정당으로서 중간계층과 서민층을 대변하는 '중도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목에 밧줄을 매는 '재벌해체론'까지 들고 나오는 등 강도높은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당이 치한 조직기반 및 인적구성과 그들이 표방하는 정책 노선과는 커다란 모순과 괴리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도정당의 허구성은 정책공약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즉 경제집중

무능력과 기존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강도높게 진행하고, 특히 최근 몇년간의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민생파탄에 따라 '현대의 신화'를 유포하며 경제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나갈 것이다.

그러나 국민당의 행보의 관련하여 미국의 한국지배전략의 일환으로서 민주당과의 '제2의 정계개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김정선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김기중 지음 동국대출판부 발행

이나 집착하던 방법은 정도로 평가하기 일쑤인 이 시대, 그는 어렸을 스스로 실증적 태도를 내세우며 단숨에 말로 그치지 않고 이 책을 통해 그 당위성을 보여준다. 달리말해 그는 단지 실증주의적 태도를 벗어날 정도로 지금 우리의 학문적 태도가 든든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진 다음 이에 대한 사례로서 여러 문제를 지적, 비판을 가하며 반성을 촉구하는 논문을 내놓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의의를 헤아릴수 있고 이번 연구가 여전히 소중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게된다.

수북 논문은 성격에 따라 대개 다음과 같은 갈래로 지워볼 수 있

방대한 자료 수집 실증적 태도의 섬세함 돋보여

"월령체가, 달거리와 다른 장르"

수필이나 고백담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학술논문도 지은이의 모습과 체취가 스며든다. 최근 동국출판부에서 펴낸 김기중 교수의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란 663쪽의 방대한 분량의 책을 보면서 마치 나는 지은이를 눈앞에서 뵈는 듯한 느낌-집세함, 철학적, 진지함-을 받았다.

일관된 논리전개라는 절에 비추어 한계가 따르고 관점이나 서술 시점에서 벗어지는 자질이 나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없었던 논문은 한자리에 모아놓은 이 책은 지은이 내부를 관통해 흐르는 학적 관심과 시각을 짚어보는 데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장점은 별도로 얻을 보기에 이 책은 방법론에 준감한 편은 아니기하는 우리 또한 성실하게 남긴다. 기발한 발상이나 서구 이론으로 포장한 논문이 자체의 성과와 여겨지는 풍토와 그의 글은 유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칠 정도의 꼼꼼한 주석 책기와 통계적, 도식적인 분석은 누구도 쉽게 따를수 없는 그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 자체가 그의 한계로 이어질 공산이 짙다. 상상의 산물인 문안이 객관적 시각이나 불충이란 수단만으로 다 해결될수는 없지 않은가. 당장 어디든 가 이런 불행이 날아올 것이다.

그가 그것을 모를리가 없다. 나아가 그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학문적 풍토와 취약점을 꿰뚫고 있다. 아울러 그는 문학연구에서 방법론으로 무엇을 택할지 논리를 확보해야 하고 그 연구의 특기가 굳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가 대담 강조하는 것처럼 자료정리, 발굴, 선행연구에 대한 진지한 점검이나 진지한 고증적 작업에 대한 의무부여는 그의 지론인 셈이다.

실증주의란 국학연구 일세대들

다. 첫째, 기존 연구안에서 그 전제에서부터 잘못되었던 사실들의 새로운 검증, 예컨대 삼국유사의 작자인 일연의 전기적 오류에 대한 재검토 '일연화상과 그의 문학'나 '월령체가, 달거리, 세시풍요' 등은 서로 다른 장르종류이며 '동풍'은 중국의 12월상사에서 연유하였다 '고려 가요와 구전민요' '동풍과 심월월 상사'는 주장들이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음은 선행학들의 연구를 비판 보완하고 작품의 기능과 성격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것들로 呪力觀을 중심한 향가 해석이 있다. 그밖에 비교문학적 연구에서 작품의 국제적 관련성을 검토해보려는 예로 '향가문학의 불교적 배경' '敦煌가사와 한국 시가문학'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江州雜詠과 張翥世' '經國歌와 丁致愛' 등의 논문이 돋보인다. 이외에 그야말로 자료의 정리에 해당하는 몇몇 작업이 있는데 이 역시 논문이상의 시간과 정성의 산출임에 틀림없다.

전체 논문들은 통시적으로 삼국시대에서 시작, 20세기에 이르고 장르 역시 향가, 고려가요, 가사, 시조까지 다양하게 걸쳐있다. 따라서 이 책은 고전시가 전공자나 그쪽에 관심있는 이 모두에게 딱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믿는다.

다만 한글로 써도 무방한 일반 용어까지도 굳이 한자로 표기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 간혹 오자가 보이는 절들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한, 개별논문의 묶음인만큼 각 논문의 말미에도 그 작성 연대를 밝혀 주었으면 어땠을까 한다. 작은 단서이든 지은이의 연구체력을 알고자하는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김승호
(보교 국문교사)

학술정보

불교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

불교학 연구의 현황·평가·방향제시

불교문화연구원(원장=채인환·선학)은 개원30주년을 맞아 오는 22일 오전 10시 동국관(L401)에서 '한국의 불교학 연구 그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그동안 국내외 불교학연구개발·경향 및 주요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소개와 함께 외국의 경우와도 비교하여 분석하는 내용으로 주를 이루며 본교 교수 3명과 강사등 9명이 나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중 박경준(불교학)강사가 준비한 불교와 사회·경제, 불교와 사회·복지, 포교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천불교학에 관한 발표와 김용승(철학)교수의 불교와 인접과학 발표가 눈길을 끈다.

또한 홍윤식(역교)교수가 발표하는 불교와 문화, 미술등의 연계를 밝히는 '불교와 문화', 이봉은(불교학)강사의 불교전래이후 현대까지의 한국불교사 전반에 관한 발표도 있다.

한편 이들 주제발표의 방향은 현 한국불교의 제 현황등과 관련하여 저급까지의 연구에 대한 성격, 장·단점 및 영향등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연구경향에 대한 예측 및 미래학분야에 대한 연구과제와 미래 지향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 개최이후 주제에 관한 원고는 올해 말 단행본 논문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박수호 기자>

SAM YANG GROUP

1992년도 **대학생 하계어학연수 안내**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 갑시다.

풍요로운 사회! 그것은 우리모두의 소망이며 꿈입니다. 1924년 창업 이래 인간중심의 기업분화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사회건설에 이바지해온 삼양그룹 모두는 창조, 책임, 화합의 사원정신으로 밝은 미래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밝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어학연수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삼양

①연수기간	●1992. 7. 1(수)~7. 29(수)
②모집인원	●45명 (15명씩 3class 운영)
③응모자격	●4년제 정규대학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으로 서울지역 거주자
④선발방법	●어학수준테스트 (테스트 일정 개별통보)
⑤프로그램 내용	●어학강좌 : 회화중심 (고급반, 중급반) 외국인강사 초빙, 어학수준 테스트 결과에 따라 편성 AM 09:30~10:50 (2 class 운영) AM 11:00~12:20 (1 class 운영) ●공정강좌, 명승지관광, 단합대회 등
⑥접수기간	●1992. 6. 1(월)~6. 10(수) 토요일은 12:00까지 접수함
⑦지원서류	●명사 인사부 인사과 (반명함판 사진1매 및 학생증사본1매 첨부, 본인 직접 제출요망)
⑧기타	●출석상 및 우수수료자 시상 ●수료자 전원에게 고급기념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부 인사과로 문의 바랍니다.
유연번호 110-725 서울 중로구 연지동 263번지
(☎ 740-7153, 7155)

—동국대학교 개교86주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p>대한불교 조계종 주계황통사</p> <p>신대지중일일동 도중일일동 일일동</p> <p>신대지중일일동 도중일일동 일일동</p>	<p>三仙布敎院</p> <p>講院 師長 妙志 淘光</p> <p>三仙布敎院</p> <p>講院 師長 妙志 淘光</p>	<p>주홍 신도회장 대중일일동 홍신도회장 대중일일동</p> <p>주홍 신도회장 대중일일동 홍신도회장 대중일일동</p>	<p>정각</p> <p>주지이광우</p>	<p>낙산 재교총부주무부지산 재교총부주무부지산</p> <p>재교총부주무부지산 재교총부주무부지산</p>
---	---	---	------------------------	--

1. 고졸이상 17~26세
2. 행정병부특기부여
3. 매월 단체입영
4. 6주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 유사학원주의
· 사무자동화(OA)병
· 차트(일반행정병)
· 타자사수행정병

합인성학원
☎ 730-6946~7
종로1가 무과수제과 2층

유니사무과수제과
☎ 735-2323, 9716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 옆

실천기구 앞으로 활동에 '주목'

제7차 고위급회담과 합의서 이행기구 전망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은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천기구들을 구성하기로 남북한이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남북한 통일 논의나 합의서 이행여부를 살펴 봤을 때 여전히 이행기구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앞으로 설치될 합의서 이행기구의 성격과 그가 안고있는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지난 5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열려 서울에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남북한은 지난 2월 평양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킨 뒤, 두 달 이상이나 3개의 분과위와 핵통제공동위의 정식회의를 12차례 가진 것을 비롯해 5차례의 별개의 위원 접촉을 통해 공동위 구성과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한 협상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합의서에 대한 기본 해석의 차이, 공동위원회 등 실천기구의 발족과 각 부문별 부속합의서의 관계 설정 문제 등에서 서로 다른 논리를 펴면서 줄다리기를 계속할 뿐 서울회담이 열리는 날까지 구체적인 다른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최근 들어 남북 안에서 열리는 남북회담에 대한 '보수강경

첫째, 남북한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장에 따라 남북화해분야의 이행·실천기구로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것이며, 그 시기도 오는 9월 15일 평양에

남북 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는 기구'로 포괄적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기능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공동위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은 현재의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즉 군사공동위

내핵, 이와는 별도로 남북한은 남북합의서 이행에 대한 민족 앞의 첫 선물로 올해 8·15해방 47돌을 맞아 노부부 100명과 예술인 70명으로 구성되는 '노부부 방문단 및 예술단'을 교환 방문하기로 했다. 이로써 남북 제한적이거나 이산가족의 교환방문을 정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몇가지의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은 합의서 이행기구설치, 교향방문 등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합의서 실천기구의 활발한 활동'의 과제를 남겼다.

군사공동위 정전상태 평화상태로 전환시켜야 "통일접근, 각 분과위 활동에 달렸다"

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어 이번 회담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고, 나아가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실천기구들을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등 5월 18일자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불가침분야의 부속합의서는 오는 9월 1일까지 작성하고 교류·협력분야의 남북관계는 공동위원회라는 실천기구와 부속합의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속합의서의 시한 결정은 구체적인 시기가 잡혔다는 성격을 지닌다. 둘째, 남북한은 오는 5월 28일자로 자기측 지역에 '남북연락사무소'를 각각 설치하고 그 명단을 상대방에 넘겨줄과 동시에 사무소 운영을 개시하기로 했다.

합의사항은 분명 남북관계의 진전에서 구체적인 이행·실천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북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이견과 과제에 상당히 많은 사실도 함께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진통 끝에 타결된 '군사공동위원회'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남북합의서 제 12조에 따르면 군사공동위는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해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적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되어있다. 즉 군사공동위는 다른 공동위와 달리 분과위의 합의사항만을 이행·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협의의 기능을 갖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군사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다시 이 기구의 위상을 '합의서에 따라

는 남북간의 실질적인 군축을 비롯해 정전상태의 해소에 따른 군사정전위의 해체 및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가늠해 보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위급회담의 '가시적 선물'로 주어질 노부부의 교환방문도 성과임에는 분명하지만 1천여명의 이산가족중에 겨우 100명을 뽑아서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일주일도 못된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크게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번 7차회담에서는 남북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기구들을 구성해 민족적대립을 통일에 전환을 더 나아가겠다는 남북한 당국자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지금까지의 남북관계가 그렇듯이 구체적인 성과는 각분과위가 열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동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인공기 계양 파장과 통일운동

태계준 전대협위원장, 김영하 전대협 조동위원, 이상현 전대협 총학생회장 등 구속영장 발부. 포클레인, 소방차를 동원해 정문 바리케이트를 뚫고 전경 1천여명 투입. 지난 18일 남충원산하 조국통일학생위원회 출범식 도중 가로 70cm 세로 40cm의 조판한 인공기의 등장은 사회의 큰 반향과 여론을 환기시키며 지역충원 및 대학 핵심간부의 연행, 구속영장 발부등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 노력한다는 의지의 표현인 태극기, 인공기, 단일기의 계양은 당초 학생들의 소박한(?) 취미를 벗어나 언론에 호도되면서 당국에 탄압의 빌미를 제공해 준 셈이 됐다. 전대협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기 계양은 정당하다. 그러나 3개기의 계양취지에도 불구하고 인공기 계양만 의도적으로 부각, 19일 전대협의 '민자당 전당대회 분쇄투쟁'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어 단일기만 내걸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3일 성대 반박 대자보는

떠난 역효과는 없을 것인가 하는 예측도 철저하지 못했다. 이미 전대협, 지역총련 핵심간부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5·19 반민자당 투쟁, 8·15 범민족대회등 앞으로의 통일운동에 있어 '인공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민원 탄압의 호기를 기다렸던 집권당의 강경대응에 맞서 통일운동의 열기가 침체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너무 성급한 판단일 것이다.

시비불구... 반통일정책 돌파 계기

법국민적 통일운동전술 필요

9일 부산경찰청은 부울총련 출범식 전야제에 등장한 인공기(가로 20cm 세로 15cm) 1백여개의 계양에 대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행위"로 규정, 관련자는 "잘가서" 추적·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일 전남대 학원입시후 인공기 입수를 위한 경찰의 학내진입은 9일 동아대, 13일 건국대등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90년 범법외의 전경선로 이후나 영파를 입수를 이유로 학원을 난입했던 예전과 달리 수천명의 경찰과 포클레인, 소방차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인공기 계양에 대해 강경대응을 계속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정진식 국무총리는 14일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인공기 계양을 단호히 반대하는 특검 수사반을 편성, 관련자 색출 및 검거활동을 펴고 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5일 전국 18개 대학총장이 참석 한 가운데 긴급모임을 갖고 '인공기 계양 자체'를 촉구했다. 국가보안법철거와 평화통일을 위

인공기계양의 정당성을 전제하면서 "그러나 인공기계양은 학우들로부터 의면받은 그릇된 투쟁방식이며 차 고위급회담의 성과, 국민의 통일지향 고조등 주변환경은 이미 충족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90년 불교대학생회에서 벌였던 '북한바로알기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정부의 반통일정책을 국민들에게 선전하며 국민·학생들의 보편적 정서에 맞는 통일운동을 전개한다면 정부의 특행수사반 구성, 10여명의 인공기를 압수하기 위해 수천명의 경찰이 학원에 난입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반성할 여지가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과연 무엇이 반통일적 행위이며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반통일 악법인지를 스스로 인식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통일운동의 열기는 인공기계양 그 자체가 아니라 이후 우리모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더 큰 관건이다. (사회부)

이후의 통일운동은, 특히 학생운동이 어떻게 통일운동전술을 구사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7차 고위급회담의 성과, 국민의 통일지향 고조등 주변환경은 이미 충족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90년 불교대학생회에서 벌였던 '북한바로알기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정부의 반통일정책을 국민들에게 선전하며 국민·학생들의 보편적 정서에 맞는 통일운동을 전개한다면 정부의 특행수사반 구성, 10여명의 인공기를 압수하기 위해 수천명의 경찰이 학원에 난입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반성할 여지가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과연 무엇이 반통일적 행위이며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반통일 악법인지를 스스로 인식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통일운동의 열기는 인공기계양 그 자체가 아니라 이후 우리모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더 큰 관건이다. (사회부)

동약로

故 박상구(야간 산공92졸)동문의 의문소식이 전해지고 동우들은 불꽃이 뿌려진 뒤 벌써 열흘이 넘게 지났다. 그러나 동약은 아무런 반응이나 관심없이 대중제 준비에 부산하다. 박동문이 생전에 지냈던 동공관 M동 4층 강의실엔 사진과 시든 국화 몇송이만이 단상을 꾸민 채 쓸쓸히 지켜서 지나가는 몇몇 학생들의 눈길을 끌 뿐이다. 박동문의 출신 단체인 야간장과 총학생회만이 유족들과 접촉을 가지며 사진 1, 2차 보고서 5백부를 제작·배포하며 독자적 선전작업을 펴고 있지만 이것도 역량부족으로 큰 홍보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의문속에 남겨져 예전에 그려왔듯이 진상 규명도 되지 못한 채 정치투쟁과 대중제 속에 묻혀 학우들에게 잊혀질 것같이 안타깝습니다"라는 이상호(무역)야간장과 총학생회장의 말처럼 간혹 동공관이나 해화관에 붙은 대자보를 보며 무심히 지나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이에 이상호군은 총학생회에 사진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의문사

그러나 모두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위원회를 합쳤으나 추후만이 무기한 사건을 학우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고민으로 남았다. 앞으로 20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활동을 시작할 대책위원회의 크나큰 과제다. 현재 사진의 추이에 대해 이상호군은 "아직까지 확실치 밝혀진 것은 없으나 진상 규명이 요구되는 문제들은 많다"라고 말했듯 아직 아무런 진척은 없었다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지난 15일경 발표할 예정이었던 부검 결과도 오는 26일쯤으로 미뤄졌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전하고 조사하는 데 왜 우리가 나서야 하는가"라고 한 학생은 말한다. 지난 8일 오후 7시 학생들이 하고 떠나던 동약의 동우들이 심심한 남기고 어떤 시선도 밝혀지지 않은 채 한 선배의 뱃가투가 온 동약에 찾아왔다. 우리에게 찾아와 묻힌 선배를 먼저 묻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같이 괴소이다. (박수호 기자)

1992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각 대학원

불교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정보산업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① 불 교 학 과: 불교학, 신학 ② 불 교 사 학 과: 불교사, 예술사 ③ 불교 사회학과: 사회복지, 포교학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6. 1(월)~6. 12(금) 3. 전형일시 및 장소 ① 석사 및 연구과정 1992. 6. 19(금) 13:00 본 대학원 ② 관리자과정 1992. 6. 20(토) 13: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 과정: 필기시험(영어, 전공) 면접 ②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 전 ① 조계종 재계승려, 공무원, 군인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② 석사과정 사회복지 전공 졸업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③ 관리자 과정 중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 수여 전화 260-3097-3098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① 행정 학 과: 일반행정, 공공정책, 지역개발, 관광행정, 언론홍보 ② 안보행정 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북한학 ③ 안전관리 학과: 안전관리 ④ 금안행정 학과: 경찰행정, 사법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사경비행정 ⑤ 복지 행정 학과: 사회복지 ⑥ 노무행정 학과: 노무행정 2. 원서교부 및 접수: '92.6.2(월)~11(목) 본 대학원 3. 전형일시 및 장소: '92.6.13(토) 오후 2시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전공(행정학), 서류전형, 면접 ② 연구, 행정관리과정: 서류전형, 면접 5. 특 전 ① 공무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 지급(수업료 30%) ② 우등장학금, 총장장학금, 동문회장학금등 다수 장학특전이 있음 ③ 사회복지전공 졸업자는 1급 복지사 자격증 취득 전화 260-3101-3102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① 경영학과: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② 회계학과: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③ 무역학과: 무역이론, 무역관리, 국제경영 ④ 경제학과: 관리경제, 국제경제 ⑤ 경영정보학과: 컴퓨터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⑥ 노사관리학과: 노사관리 ⑦ 부동산학과: 부동산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6. 1(월)~6월12일(금) 오후 5시까지 (단 토, 일요일은 제외)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2. 6. 20(토) 오후 2시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논술 및 면접 ②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 전 ① 해외 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 있음. ② 경영정보학과 및 생산관리전공은 본교의 컴퓨터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③ 공무원, 교직원, 군인,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전화 260-3105-3106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① 교과학과: 교육행정, 교육경영 ② 교육교육학과: 국어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수학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미술교육, 한문교육, 체육교육, 영어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가정교육, 전산교육, 종교교육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5. 27(수)~6. 5(금) 17:00마감 (단, 토요일은 교부만 함)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2. 6. 13(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필기시험(전공, 교육학) 및 면접 ② 연구과정: 필기시험(교양) 및 면접 (단, 미술교육전공 연구과정 응시자는 활동실적(포트폴로) 포함하여 작품 20여 장 이상 1점 제출) 5. 특 전 ① 우대전형: 중등학교 현직교사 및 교감, 교장, 교육행정기관의 장학사, 연구사 등. ② 장학: 공무원, 교직원 및 조계종 재계승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③ 특 전: 교원자격 검정기준 해당자는 졸업 후 중등2급 정교사자격증 발급. 전화: 260-3109-3110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① 정보통신학과: 정보관리, 전자계산 ②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 출판관리 ③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 ④ 산업개발학과: 산업개발 2. 원서교부 및 접수 '92.5.29(금)~6.10(수) 10:00~17:00 (단, 토요일은 교부만 함) 3. 전형일시 및 장소: '92.6.13(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필기시험(전공·영어) 및 면접 ② 연구과정·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 전 ①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중견간부요원으로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분을 우대함. ② 권역 언론인에 대하여 특별우대장학금을 지급함. ③ 공무원, 교직원, 군인, 국가산업체 중견간부요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 전화 260-3113-311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교학부로 연락바랍니다.

기획서리즈 마지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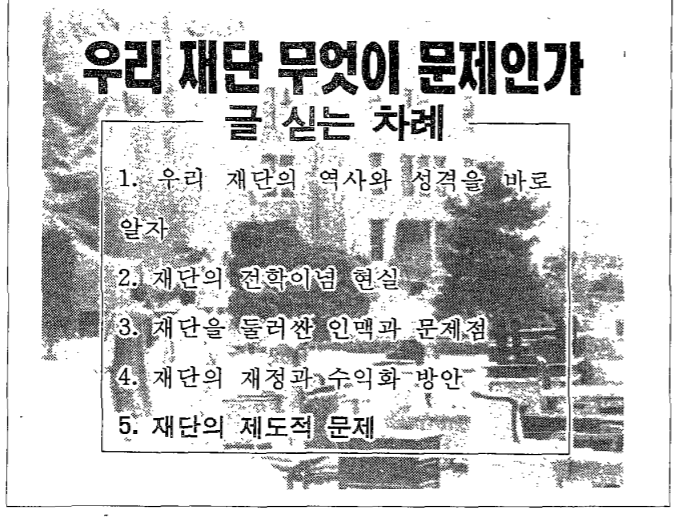
재단의 제도적 문제

재단의 인사·재정권 장악... 횡포 '고고'

‘주인없는 대학’ 이는 74년 해방 후 소위권 분장으로 관선이사 등 장하면서 세간이 떠돈 본교에 대한 비아냥이었다. 그 후 우리대학은 수많은 대학의 주위를 돌며 20년 이상의 ‘생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학원 각주체의 무기력감이나 불안등의 정서로 표출됐다.

이미 ‘재단혁신’의 과정은 근년에 지적되는 것이 아니며 동국발전의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대표될만큼 재단이 사학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재단(특히 재단이사회와 이사들)의 그동안 업적은 ‘따뜻한 권력’과 ‘조리한 책임’의 그 자체였으며 더욱이 90년 사립학교법 개악이후 그 권한행사의 강도는 높아졌다.



우리 재단 무엇이 문제인가 글 쓰는 차례

1. 우리 재단의 역사와 정경을 바로 알자
2. 재단의 권력이념 현실
3. 재단을 둘러싼 인력과 문제점
4. 재단의 재정과 수익화 방안
5. 재단의 제도적 문제

총장에게 인사·행정권 대폭 이양해야 불교제한 악법 철폐도 학원자주의 한 길

인정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일부에서는 교수회에서 총장후보 선출과 재단이사회의 총장 임명 및 동양이동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교수임면권 악용

사학법 제53조 2항, 정관 제43조 2항(학교의 장의회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은 교수 임면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러니하더라도 90년 교수회의 총장직선제에서 선출된 총장후보 2명 중 1명이 총장으로 임명된 것지만 이것이 교수회 직선을 재단이

총장의 대표적 사해다. 즉 연구실적비, 교수능력부족 등 채용합격률의 이유가 있는 교수의 해임이 아니라 교수회활동, 학생회활동 등 조, 시국선언 등 교육민주화에 앞장서는 교수의 해임에 적극 악용되었다.

더 큰 문제는 학원의 한 주체로서 대학인사·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교수회활동을 인정치 않으려는 재단의 의도다. 결국 대학의 인사권을 장악, ‘재단승용형’ 인사들을 키워내겠다는 사학법의 실제 의미와 재단의 태도 역시 이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재단과 학원자주

그이외에도 학원자주를 위한 최

단행로는 ‘막강과위’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학기 교수채용에도 재단이사회의 의결과정에서 갑자기 채용학과 전공을 변경, 이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교수후보에 대해 채용불허와 변경된 전공으로 2학기에 다시 채용한다는 방침이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복잡하고 엄격한 채용과정을 통해 채용이 확실시된 교수후보가 재단이사회의 전공변경 결정으로 채용되지 못한 것이다.

사학법 개정과 재단혁신

90년 사학법 개악이후 각 사학에서는 독소조항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관개정작업에 착수했

이 중에는 교수임면권의 악용을 우려, 정·부교수에 제한하여 채용요건을 폐지키로 결정하는 등의 개정안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본교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재단혁신의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사학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나아가 대학발전이 적극적인 재단을 기대한다고 했을 때 사학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정관개정작업은 시급하다. 또 이사들의 자격, 재단의 전입금 등의 조항도 정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불교 제한 악법

전통사찰보존법, 불교재산관리법(폐지) 등 불교를 탄압하는 제한악법의 개정도 동국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대개 부동성의 성격이나 그 실효를 미치지 못하는 처분이 있어 정부에 대한 로비가 대단하지만 자신들의 편견·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다.

실제 재단소유 임야의 매각이 이루어지면 정부 각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정부와 재단의 관계가 미묘하게 나타난다. 즉 불교계의 ‘반항’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악법으로 불교계의 목을 죄었던 정부의 불교탄압사태를 살펴본다면 자신의 수익사업전환, 부동산매각 등을 통한 전입금 확보등의 재정지원에 있어 재단 또한 ‘정부에 골목 보여야 한다’는 심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국발전, 민족통일의 중흥의 길에서 불교자주화, 즉 정권의 속박에서 불교가 의의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개혁이 중요한 환경을 만들고 이를 위한 재단악법의 폐지정당도 재단혁신의 한 방도일 것이다.

(이병민 기자)

명진관 공간부족 해결책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중 하나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규정은 ‘잘 있어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 동양인도 이러한 특성에 사도착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심각한 개인에게는 심각한 문제는 아닐지언정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 88년 학원자주화 투쟁이 전국에서 자주학원 건설에 도화선이

이과대 공간 과학관으로 배치 각과 전용강의실 2개...올해 1개로 줄여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겠다고 장담하던 식으로의 학우들과의 접근은 이제 끝나야 한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본과대의 공간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더이상 공간을 늘릴수는 없고 더이상 건물들을 지을수는 없는 형편이다.

단 하나의 해결책은 이과대과 과학관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 뿐이라 생각한다. 현재 이과대의 경우에는 실현가능성도 보유하고 있고 파마다 여러 형태의 모델방이 있으며 또한 파 도서실도 존재하고 있다.

파 도서실 하나, 실습실 하나 번번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본과대에 비해서 훨씬 나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과대과 과학관으로 옮긴다면 본과대의 모든 수업은 명진관에서 받을수가 있고, 본과대 전용 도서실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코 소극적인 대안이 아니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이다.

그리고 여전히 1학년의 경우에는 본과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원관이나 동국관에서 전공수업을 듣고 있다.

강의실 부족, 현재 본과대의 파마다 2개의 전용 강의실을 사용하고 있다. 본과대가 7개파니까 14개 강의실 다스릴때 2개의 강의실에서 1·2·3·4학년 모두가 전공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파마다 보니 국문과나 윤리학과 경우에는 전공선택수업을 타건물에서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할 점이 하나있다.

2학기에는 파 전용강의실이 하나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공동 강의실 -7개 파가 같이 사용하고 -로 사용된다고 한다. 애긴 죽은 스승의 문제를 실습실이 들어선다는 것...

실로 충격이 아닐수 없다. 아직은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으나 국문학과 학과실로부터 확인된

(문과대 영문과)

진금점검 단과대신문의 현황과 위상

올해들어 단과대신문의 창간·복간이 활발하다.

15일과 사과대신문 제5호(복간호)를 비롯해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에서 이미 3·4월에 신문을 발행했고 아직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단과대학생회도 창간 또는 복간을 준비중이다. 여기에 학생복지위원회, 각과신문까지 포함하면 학내에서도 수많은 종의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공과대신문인 ‘청년공학’ 이과대신문인 ‘변혁’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타블로이드판 4면이나 8면으로 발행되는 이들 단과대신문에 대한 관심은 당연 해당 단과대 학생들, 즉 단과대라는 근거지의 협조함으로 학생들에게 비교적 쉽게 읽히는 신문매체이다.

각 단과대신문은 워드프로에서나 컴퓨터 ‘한글’ 및 편집기능을 이용해서 문장을 작성하고, 편집업자를 통해 마스터로 찍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일간지나 대학신문에 비해 조잡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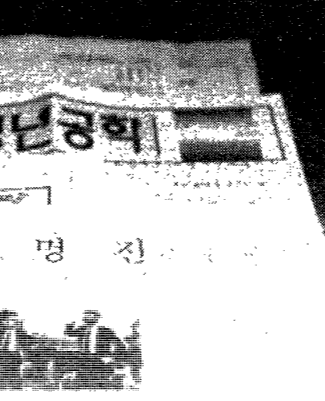
소식지와 언론지의 절충점 찾아야 기관지 탈피 위해 편집부 독립 필요

이나 영성만 느끼는 줄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보다 소단과대신문의 위상은 무엇인가? 스기관지인가 소식지인가, 아니면 비판기능을 갖는 언론매체인가 하는 내용적 고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각 단과대신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발행된 명진, 청년공학, 사과대신문, 변혁은 기관지나 소식지 역할을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언론지로서의 편집방향을 보이는 신문은 아직 없다. 다만 사과대신문은 타단과대신문과 달리 다양한 입용거리, 기획특집물들을 실어 언론지로서 접근하는 유일한 단과대신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타단과대신문의 내용은 소식지와 기관지를 절충하면서도 단과대학생회의 기관지로서의 역할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명진 92-1호는 4면에 7개파를 소개합니다. 각 파를 소개할 뿐이며 변혁1호는 대면4면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생화나 학생들의 의견수렴단이 없다. 또 청년공학(공과대신문)은 대면 3·4면에서 각과 소모임·일정들을 실고 있으며 독자투고란을 두고 있다.

그러면 단과대신문의 위상은 어떠한가? 그것은 소식지와 언론지의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단과대소속학생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과 단과대소속학생의 참여된 관심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과과정, 소모임소계등을 실을 수 있는 고정란이 필요하며 단과대 특수성에 맞추거나, 일간지·대학신문의 기사와 구분되는 나뉘레도의 기획(예를들면 사과대신문의 기획 ‘대통령으로 가는길’)을 찾아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비판기능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각단과대 신문을 단과대학생회 집행부서인 편집부에서 제작하고 있어, 이러한 위상에 부

국보법어기기와 일상생활

‘국가보안법어기운동’이 올해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술로 등장했다. 본교도 대중적 기간에 각 과·단체 차원의 국보법 어기운동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직된 사고방식, 북한관련 교재를 소지한 것이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무 이적표현물 탐독·소지죄’로 적용되는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더욱이 사회모순을 개혁하고자하는 청년학도에게는 생활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 어기운동은 아닐까.

(사회부)

학생 모집

산업기술대학원 지역개발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고급산업관리자과정
전자·전기공학, 건설공학, 화학공학, 식품공학, 산업공학, 농림자원

2. 원서교부 및 접수

92. 6. 11(목)~92. 6. 24(수) (10일간)
(단 토요일은 제외)

3. 전형일시 및 장소

92. 6. 27(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 전

- ①기업체 및 국가기관의 종전간부와 장기 실무 경험자는 전형시 우대함
- ②공무원, 군인, 교직원 국가 산업체 및 유수한 기업체 종전 간부에게는 각종 장학금을 지급함
- ③재학시 총장 장학, 우등 장학, 외국인 장학 등 각종 장학 특전
- ④해의 자매결연 대학 등에 연수 기회 부여
- ⑤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TEL. 260-360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교학부로 연락바랍니다.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개발행정학: 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경제 개발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6. 9(화)~18(목) 17:00까지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2. 6. 20(토) 14:00 본 대학원(경주캠퍼스 진흥관)

4.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논문, 서류전형 및 면접
- ②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 전

- ①기업체, 정부부서 실무경험자는 전형에서 우대
- ②공무원은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 30%)지급
- ③우등장학, 총장장학 등 각종 장학특전 있음

전화: (교학) (0561)2-0131~6(263)
(직통) (0561)41-4131

대학원 학생모집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2.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 1) 시험과목: (가)영어 (나)전공 (다)구술고사
- 2) 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개문항의 독해력 시험, 전공시험은 각 학과별로 공통필수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 박사과정

- 1) 시험과목: (가)영어 (나)전공 (공통, 세부전공) (다)제2외국어 (라)구술고사
- 2) 시험내용: (가)영어시험은 4개문항의 독해력시험이며, 전공시험은 학과 공통과목 및 세부전공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 나)제 2외국어 부과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한의학과
- 다)제 2외국어 시험과목: 불어, 독어, 일어, 법어, 한문, 중국어 중 택일(단, 법어는 인도철학과, 한문은 국어국문학과, 철(동양철학)학과에 한함)

3. 입학일정

가 원서교부: 92.5.27(수)~6.2(화)
나 원서접수기간: 92.6.1(월)~6.2(화)
다 접수정소: 본 대학원 교학부
라 시험일시 및 장소: 92.6.12(금) 10:00 동국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부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260-3093-3094

동국대학교 대학원

'92 신입생 실태조사

입학은 만족... '소신지원' 62%



조사 목적

'고등학교 이후 책임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대학생들의 변화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양식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환경으로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 갖게되는 신입생들의 기대와 포부수준은 향후 그들이 대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입생들의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들의 대학생활을 예측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생활 연구소에서는 92학년도 본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실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분석적인 실증적 결과를 기초로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보람있고 가치있는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통계적 자료를 제시함과 아울러 교육활동 및 관련 교육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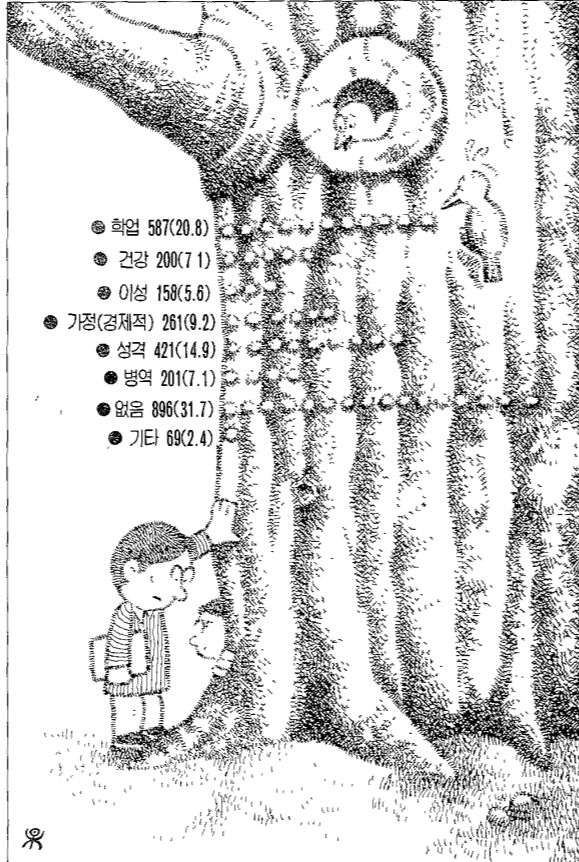
조사 내용

1.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본교 '92 신입생 전원(서울 2,040명, 경주 1,676명, 총계 3,716명)이었으며 최종 설문 회수율은 서울 1,602명(78.5%), 경주 1,222명(72.9%) 총계 2,827명(76.1%)였다(이하 명과 백분율은 생략하였음).
2. 조사 도구 및 문항구성
조사도구는 학생생활 연구소에서 제작한 '신입생 실태조사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본 설문지의 조사문항은 인적사항 및 가정배경, 대학관, 본교 인식도, 전공학과 선택동기 및 만족도, 생활 및 적응문제, 가치관 및 사회의식의 6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본란에는 이 문항들중 몇가지 주요 문항분석 결과만을 중심으로 게재하였다.
3. 조사 방법
사전 예고된 절차에 따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중 각학과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괄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들을 조사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문항별로 빈도 및 백분율을 등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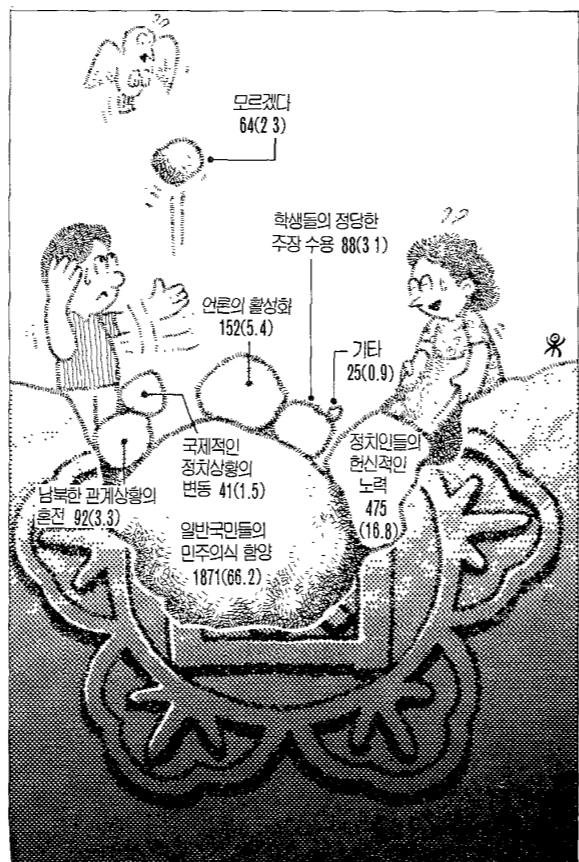
조사 결과

1. 인적사항 및 가정배경
 - 1) 주성장지
자신이 주로 성장한 곳을 묻는 문항에 대해 신입생들은 서울 1,224(43.3%), 경북 492(17.4%), 부산 237(8.4%), 경남 213(7.5%), 경기 171(6.0%) 순으로 응답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자신의 주 성장지를 서울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979(61.1%), 경기 115(7.2%)로 나타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경주캠퍼스는 경북 443(36.2%) 서울 245(20.0%), 부산 180(14.7%), 경남 148(12.1%), 대구 57(4.7%)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서울이 주 성장지인 신입생들도 경주캠퍼스에 상당수 진학하고 있으나 경주캠퍼스 신입생들의 대부분 828(67.6%)은 경상도와 부산지역을 주성장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교육정도가 대졸이상(대학원 포함)이라고 응답한 신입생은 부의 경우 907(32.1%), 모의 경우 388(13.7%), 고졸은 부의 경우 1,140(40.3%), 모의 경우 1,105(39.1%), 중졸은 부의 경우 403(14.3%), 모의 경우 691(24.4%), 국졸은 부의 경우 275(9.7%), 모의 경우 547(19.3%)로 나타났다.
 - 3) 학비조달방법 및 부담능력
학비조달을 부모에게 의존한다고 응답한 신입생은 2,492(88.1%)로 나타나 대부분의 신입생들의 학비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조달능력은 보통이다가 1,832(64.8%), 여유있는 편이다가 427(15.1%), 곤란하다 403(14.3%), 매우 여유있다 88(3.1%), 매우 곤란하다 75(2.7%)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비조달능력은 보통이다가 1,832(64.8%)로 최빈치를 보이고 있고, 여유있다와 매우여유있다도 각각 427(15.1%), 88(3.1%)정도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학비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을 듯하나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매우 곤란하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정치현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을 무엇이라 봅니까



요한 역할요인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민주주의 함양이 1,871(66.2%), 정치현실의 현실적인 노력 475(16.8%), 언론의 활성화 152(5.4%), 남북한 관계상황의 호전 92(3.3%), 학생들의 주장 수용 88(3.1%), 국제적인 정치상황의 변동 41(1.5%)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3) 학생시위에 대한 생각
대학에서의 학생시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해 신입생들은 대체적으로 민주화가 목표이다 1,008(35.7%), 모르겠다 879(31.1%), 좌경색채를 띠고 있다 540(19.1%), 순수한 동기에서 민주와 추구를 목표로 한다 325(11.5%), 공산당의 주장과 동일하다 42(1.5%)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4) 사회적 문제
인구문제에 대하여 신입생들은 조금 심각하다 1,264(44.7%), 아주 심각하다 834(29.5%), 별로 심각하지 않다 566(20.0%), 전혀 심각하지 않다 96(3.4%)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약 75% 이상의 신입생들이 인구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후술할 다른 문제들의 반응분포가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과는 달리 인구문제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분포는 비교적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입생들도 23.4% 66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다 1,856(65.7%), 조금 심각하다 830(30.8%), 별로 심각하지 않다, 모르겠다 등의 순으로 응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후기 분할모집 계속 실시했으면 재학중 학비조달 곤란 졸업후 자기방향 대체로 불안정 학교생활 조연해줄 수 있는 제도 활성화돼야 학생시위... '대체로 민주화 목표' 35.7%

의미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데는 기본적으로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나 나타난 몇가지 분석결과를 상호 관련시켜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논의의 제안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본교 신입생들의 주성장지는 서울과 경상도 지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차적으로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졸업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과대 혹은 학과별로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본교에 대한 만족이유에 있어 본교 선택시 긍정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시설 및 환경 등에 대한 응답들이 (4.9%)으로 극히 저조했다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당면문제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신입생들이 학업이상의 문제와 성격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책임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대학생활의 상황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학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스스로 찾아 해결해 나가는 신입생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사전에 줄이고 대학생활에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이들의 문제점을 조기에 찾아 적절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의 활성화(예: 학생생활연구소의 체계적 개입)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생시위에 대한 신입생들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르겠다와 혹은 부정적이라고 대답한 응답비

율도 적지 않았다. 특히 모르겠다라고 하여 자신의 견해를 유보한 신입생들의 경우 학생시위가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장을 위한 공공연한 방법으로 대학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입학후 단시일내에 대학시위에 대한 견해를 형성할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학생시위는 대학교육의 잠재적 측면에 끼치는 영향과 효과가 매우 클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학시의 문화의 보다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대학 구성원 모두의 자성과 노력이 요청된다.

다섯째, 사회문제에 제시된 9개의 문항들에 대해 신입생들은 대부분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사회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 문제들이란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9개의 문항중에서 교통문제를 매우 심각하다고 대답한 신입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공해문제(1,856(65.7%)), 부정부패(1,773(62.7%)) 순으로 나타났다. 단 이러한 분석결과가 동일문화내에서 제시된 항목들간의 비교는 아니기 때문에 심각도의 우선순위를 알기 위한 지표로 적용하는에는 한계가 있지만, 신입생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도의 정도를 대략적으로나마 반영하는 지표로서의 의의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진호
(학생생활연구소 연구원)



역사의 오일에서 투사의 오일로



강경대, 박승희, 김귀정, 천세용, 김...
 먼저 간 열사들의 부훈을 좇아
 기투로 기투로 나아가면
 5월이 허순으로 접어들었다.
 온몸 삼라 항거하던 열사들은
 지금 우리곁에 없는데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아직도 견제하며
 오히려 대선을 향한
 절주를 서두르고 있다.
 오는 23일 '5월열사추모 총궐기'로
 결집하여
 과사현정을 의치던
 민족통국의 의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야겠다.
 <편집자>



'노동해방의 북소리'
 "5%총액임금제 결사 반대한다"
 (5월1일, 노동절기념대회, 정충단공원)



'민중의 시대'
 총학 상반기투쟁선포식 중에서
 (4월23일, 퇴계로)

'대결'
 1년전 강경대열사가, 또 오늘 우리가 벌이는 이 숙명의 대결.
 (4월25일, 신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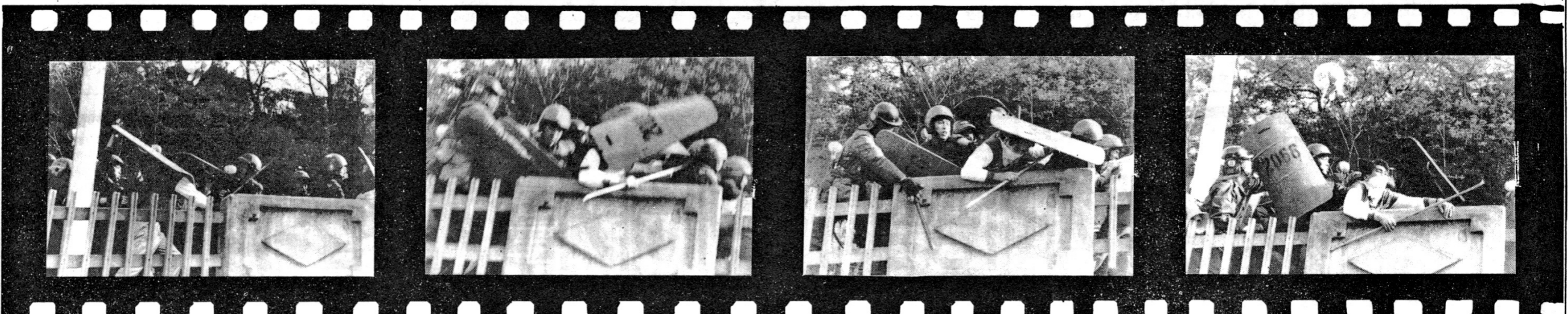
<사진 = 조용수 기자>



'수립 민주정부'
 "대중적 지지와 열망에 기초한
 민주정부수립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5월9일, 반민자투쟁, 명동성당)

'조국과 청춘'
 내 작은 이 한 목숨 조국위해 바칠 수 있다면...
 (5월19일, 반민자투쟁, 한국은행앞)

'여전한 폭력적 시위 진압'
 노동절기념 실천결의대회중 사복체포조에 포위되었
 던 한 학생이 전경들로부터 난타당하다 빠져나오는
 모습.
 (5월1일, 중문)



제5회 대학원 학술 심포지움

주제: '포스트모던시대'의 우리 인문학의 새로운 시각

발표내용 및 발제

포스트모더니즘과 근대문학인식의 새로운 방향

<발제: 황종연·본교 국문강사>

'포스트모던시대'의 미학적 인식전환

<발제: 장시기·본교 영문강사>

포스트모더니즘과 동양사상

<발제: 유훈우·창원대 철학강사>

● 사회: 이만근(본교철학강사)

● 일시: 1992년 5월 29일(금) 오후 3시~6시30분

● 장소: 동국관(L301 강의실)

주최: 제8대 대학원 학생회

후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녹두서점
 동국대 구내 서점

제7회 영어수필 경시대회

동대신문 자매지인 영자신문 The Dongguk Post
 에서는 재학생들의 영어실력향상을 도모하고자 다
 음과 같이 제7회 영어수필 경시대회를 개최하오
 니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참가자격: 본교 학부재학생
2. 개최일시: 1992년 5월25일 오후 5:30
3. 개최장소: 명진관 A103
4. 참가방법: 대회 당일(5월25일)까지 소정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참가신청서는 The Dongguk Post 편
 집부에서 배부중입니다.)
5. 시 상: 최우수작(1편)...상장 및 상금 10만원
 가 작(2편)...상장 및 상금 5만원
6. 주 제: 당일 대회장에서 발표
7. 참 고: 대회참가시 영한 및 한영사전의 사
 용가능함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The Dongguk Post 편
 집부 (260-3493)로 문의바랍니다.

The Dongguk Post

제16회 D.U.B.S 방송제

해방의 망치로
 신세력을 두드려라

동약의 현장 해방의 망치 지금 당신이
 들어야할 때입니다.

프로그램 안내

종합구상: 인권의 사자지대-성폭력
 성폭력으로 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사회
 -비단 여권의 회복만이 아닌 인권의 회복된 사회이다.

공 트: 알뜰살뜰
 보고 듣고 느꼈어요, 잠깐 귀 좀 빌려주세요
 드 라 마: 다시 이땅에 서기위해
 화려한 청춘의 한 때, 그 중 남자들이 가져게 되는 신성한(?)의
 무 '국'방

이제 양심의 북으로 새롭게 뒷질되어야 한다.
 종합구상: 당신의 귀는 지금 열려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여러분에게 다가갈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날!
 귀들은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일 시: 1992년 5월 21일
 목요일 오후 5시

장 소: 중강당

새/날/을/여/는
 교육방송국 (D.U.B.S)

반민자·민주정부 수립 투쟁

19일, 본교생 등 서총련소속 2만여명 도심시위

전국연합과 전대협은 지난 19일 민주당전당대회와 대통령 후보지명대회를 위한 반민자 총력투쟁을 전개했다.

이날 장충단공원에서 갖기로 했던 '민주당제집권 저지'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1차 국민대회'가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된 가운데 본교생 7백여명은 오후 2시부터 도서관앞에서 '사회주의운동 단합, 반민자적, 대권방박살을 위한 1만명인총력투쟁'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학생들은 사노맹 단합 규

탄투쟁을 비롯 '인공기 사건을 빌미로 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동일대역행하는 행위를 다름 아니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본교를 비롯한 서남총련 소속 2천여 학생들은 영등포 롯데백화점앞 광장에서 이은수(단국대 총학생회장) 서남총련 부의장의 사회로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대회'를 열어 "현정권은 자신들의 거둔 실적을 대권경선과 남북합의서 채택등을 통해 국민의 불만을 희석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 중한후보의 경선거부와 인공기 계약에 대한 여론공세, 국보법 강화판 피하고 있어, 이는 정통성 기반이 없는 민자당으로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반민자 투쟁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서총련 소속 2만여명은 오후 6시부터 신계백화점앞 도로를 점거, 다연발 최루탄을 난사하며 이를 강제해산 시키려는 경찰에 맞서 격렬한 투석

전을 벌였다.

오후 8시경 경찰의 저지선을 완전히 뚫은 학생들은 태계준 전대협회장의 주도로 종로 3가, 4가까지 진출해 '해체민자당, 국민배신 반대 김영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최루탄을 쏘며 강제해산시키려는 경찰들과 대치하다 밤 9시30분경 자진해산했다.

한편 본교생 4백여명은 종로 3가 지하철역에서 정리 집회를 갖고 오는 23일 전대협주최의 '민주당 김영삼대통령후보 규탄과 5월말사 추모대회'에 힘있게 결합할것을 결의했다.

경주 임석 민주대동제(12~16일)

취재낙수



경주캠퍼스 제9대 총학생회(회장=진중근·철학4) 주최 '임석 민주대동제'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교내와 성전동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동제는 '공동체적이고 생산적인 문화를 형성해내는 장을 만들자'는 본질을 계대로 살리지 못한 채 예년과 같이 학생들의 관심부족, 참여를 부진으로 일관된 대동제였다는 지적이 높게 나타났다.

○...진중근의 날(12일)은 전야제 및 임석기요제가 문무관에서 학생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정경일(경제2)군이 '시인에게'라는 창작곡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또 장교육의 실현과 정을 담은 영화 '달린 교문을 열며'는 장교조 현, 해적교사, 노동자, 학생들의 큰 호응으로 연장상영이 되기도 했다.

진정한 대학문화 형성을 위한 임석 내용을 선보어 많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대의 날(15일)은 총대 의회 주최로 동국인 장기대회 및 열려 1등 오영기(회계2), 2등 김영민(행정3), 3등 이동현(무영3)이 각각 차지했다. 또한 낮12시30분 문무관에서 열린 스승의 날 기념행사는 학생 40여명과 교수 10여명만이

은 학생이 참석해 혼잡을 빚기도 했다. 또한 사회자의 응답 패설로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밖에 번외행사도 사전전, 예쁜 T셔츠판매, 별정대의 알뜰시장, 상경대의 농산물 직판장 등이 열렸으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분위기에 젖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과 행사 또한 소수의 학생들이 참가한 채 진행돼 대동제 분위

고 박동문 진상조사 대책위

선전전-교내 제단마련 실행

지난 8일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고 박동문(야간 상공 92졸)동문의 부검결과가 연기되고 진상조사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야간강좌총학생회와 총학생회 대대위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그간 야간강좌총학생회만의 선전작업만 진행해오던 지난 18일 총학생회실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야간강좌총학생회와 총학생회 인 권위장, 야간강좌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된 학내 단상마련등을 실행하고 이후 구체적인 방향은 사건조사의 진전과 (중앙)은영 위원회등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한편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박동문의 사체는 타살흔적으로 이마중앙에 멍이 들고 양쪽장이가 심한 타격을 받았고 양팔 손목에 타박상이 발견된 것과 현재 구속중인 사건당시 동행자 이창우씨가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에서 조사중이며 부검결과로는 오는 26일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 건강진단

적년제로 시행되는 교직원 건강진단

적년제로 시행되는 교직원 건강진단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중앙대학교 부속 성심병원(필동 소재) 별관 8층에서 실시된다.

김동준교수 제정 한국시조학술상 시상

본교 김동준(국어교육)교수가 지난달 6일 제정된 제1회 한국시조학술상 시상식이 오는 23일 오후 3시30분 단국대 이부대학 106호실에서 열린다.

김교수는 시조학술상의 취지에 대해 "시조에 관한 열광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이 분야의 학자나 이바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상자는 논문 '시조의 시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김학성(성균관대)교수이다.

92학년도 예산 4백77억원 확정

소모성 예산 최대한 억제

92학년도 수입·지출 자금운용예산안(안)이 총4백77억2천13만4천원으로 재단이사회를 거쳐 최종확정돼 지난 18일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이중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학생등록금인 납입금이 3백81억4천2백86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79.9%를 차지하며 재단전입금 20억원(92학년도 10억원 추가액 포함)과 부속병원·전산원수입 및 외부장학금을 포함하는 전입 및 기부원조금이 37억5천7백63만6천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2백50억1천352천2천, 유행고정자산매입이 50억8천4백58만2천이며 관리운영비가 44억4천8백32만원으로 책정됐다.

92년 예산은 작년과 대비해 총92억5천8백39만2천원이 인상됐다. 이에 대해 예산과의 한관 계자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재정으로 편성했다"라고 밝히 복지시설확충이 여전히 빠듯한 것으로 예측된다.

◇ 92학년도 수입·지출 자금운용예산안 (단위:천원)

수입의부		지출의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납입금	38,142,868	인건비	25,001,352
수입금	733,200	관리운영비	4,448,320
전입및기부원조금	3,757,636	학생경비	7,788,004
기본재산수입	60,000	시설유지비	832,400
사할수입	150,000	인건비	3,294,100
기타수입	1,127,500	기타경비	394,150
유동자산수입	250,000	예비비	383,586
부속자산수입	100	부속자산지출	1,100
고정부채입금	300,000	유행고정자산매입	5,084,582
계정예금인출	2,800,000	모집부채상환	100
		기타예금지출	555,510
		차입금지출	140,100
총계	47,721,304	총계	47,721,304

가 44억4천8백32만원으로 책정됐다.

92년 예산은 작년과 대비해 총92억5천8백39만2천원이 인상됐다. 이에 대해 예산과의 한관 계자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재정으로 편성했다"라고 밝히 복지시설확충이 여전히 빠듯한 것으로 예측된다.

총장기 고교 농구 폐회

대경상고·인성여고 우승

제18회 본교 총장기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가 지난 16일 경술전과 폐회식을 가짐으로써 7일간의 모든 경기일정을 마쳤다.

이날 장충체육관에서 가진 남고부 결승전에서는 지난해 우승팀 대경상고가 이종호(30점)의 활약으로 대진고를 81대62로 이겨 2연패를 달성했다. 또한 여고부에서는 수원여고를 79대71로 꺾은 인성여고가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가 종료된 후 열린 폐회식에서는 대경상고 이종호군과 인성여고 이영일양이 남녀부 최우수선수로 각각 선정됐다.

한편 학교 재정문제로 인해 이번 경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총장기대 고교농구 대회는 한국 중·고교농구연맹에서 모든 대회를 운영하고 본교는 예산

대학원 심포지움

대학원학술회(회장=김대중 행정학·석사3)는 제5회 대학원학술심포지움을 '포스트 모던시대'의 우리 인문학의 새로운 시각을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동구관(L301)에서 갖는다.

'인문학의 현실과 근대(modernism)에 대한 전망'이 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은 이만근(본교 철학)교수가 사회를 맡고 황종연(국문), 장시경(영문), 유홍우(철학)대 학원장 등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심포지움에서 연회회장으로부터 총장기를 받은 한 선수를 "마지막 대회인데 이런 부대행사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의 관건은 평가의 적정성에 있다는 건 다 아는 얘기. 하지만 지난 재단감사에서 일부 과목에서의 과다한 상향평가를 대한 심각한 지적이 있었다는 후문.

올 A 이상의 평균이 10여개 과목에서 있었다는데 교수·학생 한 마음 한 뜻으로 면학한 결과라니 크게 칭찬할 일이지만, 끝내 써 마음이 답답하지만은 않은데, 사자세끼는 강하게 키우는 법이고, 예년에 배를 아끼면 망치는 법이라는 말을 새겨볼이 어떨지.

올바른 문화정책과 대중참여는 미흡

○...충정의 날(13일)은 동국의 역사와 교훈, 각 자치기구의 역할을 알고 학교를 사랑하자는 취지로 열린 '충벌' 동국사랑'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어 오후 6시 문무관에서 열린 연중제는 무리없이 진행했으나 폐회, 함락적이었던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인문대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문특경연대회와 동국인 천하강사 씨름대회는 참가팀 부족과 우천으로 인해 폐기됐다.

○...투쟁의 날(14일)은 '잊혀진 옛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옛것을 찾고 계승하자'는 취지로 전통문예식이 치러졌다. 이어 동아리 연합회 주최 '동아리 해방'은 학생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동아리의 노래공연, 문특공연, 영화상영등

참석, 스승의 은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부족과 전교조 선생님을 배제한 학교당국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채 1시간 만에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학생과 선생은 결코 적이 될수없다'는 대의아래 치러진 '전경·학생 한마당'은 서로간의 유대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홍보부족으로 진행부진이 참가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중승리의 날(16일)은 총학생회주최 백상연이 문무관에서 학생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제민(개그맨)씨의 사회로 한영애, 해마라기, 권인하, 본교 졸업생 강양욱(무영 91졸)군과 함께하는 마당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참가비에 비해 기념품이 미흡했으며 협소한 장소에 너무 많

을 살리지 못했다.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주점은 공식접수된 40여개를 비롯 무허가 주점까지 생형, 다같이 화합한다는 대동제의 뜻이 무색할 정도로 폭력이 난무했다. 또 상업성과 영리성을 목적으로한 동전 던지기, 주사위 및 추기등의 도박성 놀이, 학술진흥을 살리려는 학술제의 빈곤 등이 이번 대동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제는 대동제의 진정한 의미를 모색해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이전의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즐기는 단일한 유희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놀이를 즐기고 집단적 참여 속에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화합의 장인 대동제를 시급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취재부)

학과소식

국어국문학과
오는 22일 '학생회'의 정치투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의 취지는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치의식 함양을 위함이다.

독어독문학과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파동문및 제학생 친선도모 체육대회를 만해광장에서 갖는다.

전자공학과
제14회 전자전시회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원종간 3층 전자학과 특별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컴퓨터공학과
학술학회 주최로 제2회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원종간 1·2층에서 갖는다.

화학공학과
제1회 화공 Process 전시회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원종간 1·2층에서 갖는다.

야간강좌 회계학과
학생회장 필석과 등록금3% 사용토록 논의를 위해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에 동국관(L506)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미술학과
지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동국관 5층로비에서 동국미전을 개최한다.

기왕이면 교수님과 한잔을

○...“축제 분위기에 묻혀 버린 사제간의 정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은방울 곳곳에서 이런 탄식이 몇몇씩 각이한 학생들 사이에서 들린다는데...

내용인즉 은방울 대동제 기간중인 지난 15일 스승의 날 행사장엔 불과 4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반면, 바로 주마거리에서 주(酒)제로 변해버린 축제를 즐기는 학생들만으로 주점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이에 K과 조교한분이 너지시 원정을 "기왕이면 사제간의 따뜻한 정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면 그나마 보기좋은 풍경이 될뻔했는데..."

발목조심 합시다

○...학교내 이벤트도 포장된 길들이 파손된 곳이 많아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학생회편 열의 제안은

한쪽이 내려 앉았었고, 백상 필과 만해광장 옆의 길도 여러곳이 울퉁불퉁 패여 발을 걸을때는 항상 긴장하고 걸지 않으면 언제 어느곳에서 주춤 발목을 접지르지 모르나고.

이를 좀 걱정이었던 회전 부처가 애교있게 처방을 내리자면 "발은 좋아지는 약을

팔든지 서둘러 보수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래도 됩니까

○...유아유아 뭘 잘갔던 총장기대 전 국고농구대회가 19개교가 참가하여 진행되는 것

팔든지 서둘러 보수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래도 됩니까

○...유아유아 뭘 잘갔던 총장기대 전 국고농구대회가 19개교가 참가하여 진행되는 것



1991년 1월 입사 마케팅부 조사기획 담당 오경화

오경화氏의 "아침마다 만나는 까만 거울"

아침 인사가 오가는 활기찬 사무실 - 오늘도 나는 퍼스널컴퓨터 앞에 앉아 의자를 바짝 끌어당긴다. 전원을 넣지 않은 개만 모니터는 매일 아침 마주하는 친근한 거울. 그 위로 비치는 지난 날의 모습들...

수입료를 주는 특별한 학교 - 큰 맘 먹고 밀어넣은 입사지원서가 합격통지서로 되돌아 온 1991년 1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설레임도 잠깐. 회사는 엄청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 전산교육, 토목공학, 영어회화, AFKN청취력... 내게 있어 회사는 도리어 수입료를 주며 가르쳐주는 아주 특별한 학교였다.

회사가 내게 준 첫번째 일 - "소버지는 어떤 소행자를 원하는가?" 이것이 회사가 내게 던진 첫번째 질문이자 임무였다. 「소형 신차용 개발을 위한 소비자 조사」 - 나와 우리팀 5명은 최선을 다했고 만 3개월만에 제본을 끝낸 결과보고서가 아침내 두툼한 한편의 책이 되어 나왔다. 그날의 가슴벅찬 기분이란 /

컴퓨터의 전원을 넣으며 - 컴퓨터의 전원을 스위치를 넣으며 까만 모니터에서 사라져가는 얼굴에 묻는다. '나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자신있게 대답한다. '나는 현대자동차라는 거대한 범선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조타수이고 우리의 배는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 라고.

우리의 차, 세계의 차 -

현대自動車

아침, 부산한 사무실에서 -

아침 인사가 오가는 활기찬 사무실 - 오늘도 나는 퍼스널컴퓨터 앞에 앉아 의자를 바짝 끌어당긴다. 전원을 넣지 않은 개만 모니터는 매일 아침 마주하는 친근한 거울. 그 위로 비치는 지난 날의 모습들...

수입료를 주는 특별한 학교 -

회사가 내게 준 첫번째 일 -

컴퓨터의 전원을 넣으며 -

우리의 차, 세계의 차 -

현대自動車



"만원과 삼십만원"

●하늘글방●

전북의 어느 소도시에서 버스를 내린 민은 낯설지만 곧 만나게 될 선배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긴다. 계단에 오를 때마다 메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낡은 건물의 '하늘글방'.

문을 열자 30평 정도의 공간에 동아리 모임을 위한 몇개의 탁자와 그 가득찬 책장이 눈에 띈다. 글방을 지키는 또 한사람의 상근자가 민을 맞는다. 과거배라는 이름에 민이 멧적게 웃으며 잠시 머뭇거리며 사이 '과선배'가 대답해 버린다.

"과후배는 무슨, 운동권 후배지, 뭐?"

말이 끝나자 마자 세 사람은 웃어 버렸다. 도대체 대학 4년을 운동권 당사자로조차 여색해하는 무척이나 씩씩하고, 학교를 나와서는 이제 속자될까 했더니 한달에 고작 10만원도 채 못되는 돈을 팔듯비싼 명품의 생활비로 받으며 일하는 운동권 '이런' 말을 '조'해 냈을 그 사람은 정말 기발한 사람인 것 같다. 민이 역시도 총학생회에서 집행부로도 일한 경험이 있지만 아무래도 운동권이란 말이 보고 싶었던 민자신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았다.

"너 그리고 보니 4학년 2학기 복학해, 학점도 모자라지... 참 대동령 선견도 있네. 너 잘 생각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방황하



는 원로 운동권'이 또 하나 출현하겠구나."

선배는 자신이 1학년때 접회 때마다 늘상 뒷편에서 서서 맴돌던 '복학생'들의 착각함과 고민을 얼마전에 와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요즘 민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 대학 4년여를 살다시피 했던 학생회실이, 교정이 그렇게 낯설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웬지 와서는 안될 곳이었으며, 나만이 이방인인듯한 이질감에 학생회관 아래의 계단을 채 오르기도 전에 뒤돌아 허겁지겁 도망치듯이 학교를 나온 적도 있었다. 그래도 민이 일했던 학생회실에 들어가 보고 싶었던 민에게는 아는 사람이 없어 그것도 여의치 않다.

이제 3년의 공백인가. 하긴 그

어둠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던 긴긴 터널을 지나온 자에게 대전서로 올 정도로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으니까. 민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참 다른 애들 소식은 어떻게? 이 비정한 놈들, 나한테도 연락한 번 하는 녀석이 없네가."

선배와 함께 있는 다른 상근자는 처음 만난 단박에 편안함을 느낄만큼 친화력있는 사람이었다. 친화력이란 말은 아마 저 사람 때문에 생긴 것 같았으니까, 든든한 동료에게 선배는 많은 도움을 받으며 고마워 하지만 단 한가지 심심나는 일이 바로 이런 거란다.

어제서야 내려가기 전에 전화통화로 선배가 들린 말-"너 나보러 오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한바퀴 도는 거야?"-이 무슨 뜻으로 물어본

"너같이 여기 다니러 왔다가 밥값·방값 줄이려고 날 찾아온 비정한 놈들 때문이니까..."

...그러나 그 동료 상근자의 학교후배들은 민이같은 비정한 놈이 아니라 정말 '이야기'를 하러 찾아오는 것이었다.

것인지 그 심술의 계기가 민은 짐작했다.

"나같이 여기 주위에 채색장이나 해수욕장이 있어 다니러 왔다가 밥값·방값 줄이려고 날 찾아온 비정한 놈들 때문이니까."

문제는 그 동료 상근자를 찾아오는 학교후배들이었다. 시도때도 없이 몰려오는 후배들은 선배가 보기에도 민이같은 비정한 놈이 아니라 정말 '이야기'를 하러 찾아오는 후배들이었고, 그런 거리가 서울에 비해 가깝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고 위안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다.

그런 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였다.

민이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로 자신의 대학생활의 거의 전부였던 학생회 활동을 정리하고 난

문/화/시/평 프랑스영화의 구분별한 흥행 미국영화 직배...이젠 유럽으로 발길



○사건은 현재 켈리에게 상영 중인 '폰네프의 연인들'.

지금 프랑스의 휴양도시 칸에서는 세계 4대 영화제 중의 하나인 칸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다. 예년과 다름없이 우리나라 영화 수입업자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들 한국영화업자들이 페르라르 몰러다니면서 유럽영화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가격이 치솟아 한국영화들끼리 제갈 깎아 먹기식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탄 섞인 하소연이 전해지고 있다.

최근들어 프랑스등 유럽영화가 자주 소개되고 있다. 이미 지난 겨울에 '마농의 생'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데 이어 '폰네프의 연인들' '마틴기어의 귀향' '연인' '사랑과 슬픔의 여로' '트트의 천국' '그랑블루'...등등이 개봉되었거나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프랑스등 유럽영화가 갑자기 자주 등장하는 배경은 이들 영화가 유독 특출하거나 한국관객들이 유별나게 좋아해서가 아니라 바로 미국영화와 직접 배급이라는 한국영화 산업구조의 모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1백여개가 넘는 우리 영화사 ('영화사'에는 외국영화 수입을 주로 하는 의화수입업자, 한국영화를 주로 제작하는 제작업자, 그리고 이들을 결합한 세 부류가 있다) 중 대부분은 외국영화, 특히 미국영화를 수입하여 영화사를 유지해 왔고 한국영화는 "외화수입의 발목을 잡는 1년간 한국영화를 1편이상 제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충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 주 수입원이었던 미국영화도 직접 배급을 함으로써 수입할 영화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테로 눈을 돌린것이 홍콩영화와 프랑스등 서유럽 영화라고 소문들 돌리던 영화였던 것이다.

그래서 홍콩영화는 주지하다시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고 오히려 미국 메이저 영화를, 더군다나 우리 관객들이 사족을 못쓰는 아카데미상 수상 작품들 보다는 흥행이 앞서고 있다. 소련등 동유럽 영화

는 탈생전 개방무드를 타고 한때 우리 관객들의 호기심을 끌었으나 미국 헐리우드식 영화에 익숙해진 우리 관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자연 그나마 미국영화와 여러모로 비슷한 프랑스 영화 또는 다국간 합작 유럽 영화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유럽영화는 미국영화에 비해 수입가격이 매우 싸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적다. 그래서 여러 번 수입하다 보면 그중에 한 작품이 운때가 맞아 흥행에 성공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작품들은 대부분 영화사 창고에서 잠자거나 비디오투로 직접 출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베를린 천사의 시' '월의 사나이', '코코비라'...등이 그 예다.

그런데 미국영화 직배의 확산, 정착(지금 현재 피카디리, 스키라 등 몇몇 극장을 빼고는 대한, 단성사, 명보, 서울, 중앙...등등 주요 시내 개봉관이 미국 직배영화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오히려 극장거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으로 한국 수입업자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진데다 마침 최근 프랑스 영화 '마농의 생' '폰네프의 연인들'이 흥행에 성공하자 가격이 한껏 눈치를 들었던 유럽영화와 알 다부어 수입경쟁을 하다보니 몇만 달러하던 영화를 십 수만 내지 수십만 달러로 가격을 올려 놓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꼴이다.

프랑스 등 유럽영화의 오락성이 강한 미국 헐리우드 영화나 홍콩영화 보다 예술적 순기능을 하는 작품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영화 정서나 스타일은 우리 영화와 어떤 면에서는 흡사한 점도 있다. 자칫 영화 장사꾼들의 친박한 한평생으로 의화나 남비하고 관객들을 실망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장점들을 계속 살려 한국 영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이다.

목 먹대동제...눈길끄는 마당

92목먹대동제가 오늘(20일)부터 중앙기획행사와 단체, 과행사등이 다채롭게 기획되어 교내일원에서 펼쳐진다.

이에, 앞서 말한 행사들을 소개한다.

통일다짐위원회: 매년 유력정월 초하루부터 시작되어 대보름에 절정을 이루는 우리민족 고유의 풍동제 놀이문화의 하나로 학부위

와 학문연, 단풍연이 공동 기획해 오는 21일 대운동장에서 전통국가축과 함께 어우러져 통일을 다짐하는 장으로 승화될 것이다.

금서바자회: 사랑담양법인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불은서적물(?)로 취급당 금서조치된 책들을 사파대에서 모아 전시·판매하며 수익금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금으로 쓰여진다.

'새로운 영화...' 연영과 소모임인 '진전·새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영화제를 개최한다. 상영작품은 장산곶에서 제작해 상영금지등 제제조치를 받았던 '달인교편을 열며'가 22일 중앙극장에서 상영되고 소련의 '대지', 폴란드 '월의 사나이', 블러비아 영화등 일련에 걸쳐 공개되지 않았던 영화들이 선보인다. (문화부)

모두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현재·미래생활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상식적으로 시간은 요즈음같은 황금민중시대에서 엄청난 황금을 제공하더라도 들이킬 수 없는 것이다. 매시기를 단절시켜 놓고 보았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일평정도

이것을 어느정도 충족시키는 것은 현재 당면하는 요소소스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이리라. ▲ 지금 우리는 일년의 시간공간중 5월이라는 중간지점에 와있다. 사람들은 투쟁의 5월이라 찬란한 달이라고 한다. 또 어떤이는 계절의 여왕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이말을 번역시키자고 하는 청년학도에게 5월이 던져주는 의미는 이것뿐만이 아닐까. 깨닫는 최루가스속의 5·19만민자투쟁이 있었고 다가오는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결투병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시대가 이말의 청년학도에게 요구하는 당면시기의 중요성을 모두 각인하는 5월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세월'이라는 가요가 한때 유행했지만 시간의 흐름속에서 길 잃은 미야모다 번역력 삶을 창조하는 5월이 되어야 한다. (麟)

이것을 어느정도 충족시키는 것은 현재 당면하는 요소소스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이리라. ▲ 지금 우리는 일년의 시간공간중 5월이라는 중간지점에 와있다. 사람들은 투쟁의 5월이라 찬란한 달이라고 한다. 또 어떤이는 계절의 여왕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이말을 번역시키자고 하는 청년학도에게 5월이 던져주는 의미는 이것뿐만이 아닐까. 깨닫는 최루가스속의 5·19만민자투쟁이 있었고 다가오는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결투병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시대가 이말의 청년학도에게 요구하는 당면시기의 중요성을 모두 각인하는 5월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세월'이라는 가요가 한때 유행했지만 시간의 흐름속에서 길 잃은 미야모다 번역력 삶을 창조하는 5월이 되어야 한다. (麟)

시간의 중요성

실망과 후회를 하곤 한다. '그당시 좀더 시간을 절약해 생활했더라면...'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과거의 일은 현재나 미래의 생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지 못하는게 사실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시간의 연속선상에 놓여서 일정한 궤를 그으면서 이제상을 살아간다는 것도 불가능

잠깐 생각해봅시다 ①

'술판'축제는 이제 그만

요즘 동학년 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만원'인 장소가 있죠. '주점'!

축제가간에 빼놓을 수 없는 단골행사중 하나가 바로 술장사(?)가 아닐까 하는데, 몇해전이던가 축제기간중 주점의 수가 무려 50여곳이 넘었던때가 있었죠. 마치 '술판'축제를 창조한듯 했는디...

지금도 역시 '주점'은 대학가 축제의 터줏대감임이 분명한 모양입니다.

술직히 말해 흥경계 노는데 술이 빠진다면 일이 되겠습니까마는 대동제 3일을 속위로 고생할 정도로 보내신 안부있죠. 또한 주점으로 매년한번 벌이보겠다는 야심에찬 분들! 주머니 돈이 썩지돈이라는데 알막한 선주배의 주머니 털어 뺏겼거나 남기겠다고, 우리 알맞게 팔고 적당히 남십시다.

이,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참다운 대동제는 '함께 모여 크게 한번 취해보는 행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한한 하러가기전에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나의 발걸음을 간절히 원하는 곳이 반드시 눈에 뜨일 것입니다. (문화부)



과거의 의미

▲인류의 역사는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속에서 변화·발전해 왔다. 우리 조상들은 시간의 흐름을 알고자 물시계, 해시계를 이용하는 등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열차시간을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어떠한 회의를 시작할 때에 맞추어 시간과 사물의 관계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상에 태어나서 언제부터인가 손이나 목에 시계를 달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간을 단순히 알고자하는 면도 없지 않지만 시간이 의해서 우리의 활동이 의식적인 무의식적인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존경하는 인물이나 역사상에서 그들을 과거와 변함없이 후대까지 전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본모는

교통이 편리합니다 - 지하철?출선 정실역까지

호반의 밤이 깊어갈때 우리는 그대로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데이트 티켓 발매

★개봉 후 손쉽게 구입 가능한 호반의 밤... 데이트 티켓 발매... 호반의 밤... 데이트 티켓 발매... 호반의 밤... 데이트 티켓 발매...

2,500원

캠핑스테이, 대학생특별할인

★캠핑스테이... 대학생특별할인... 캠핑스테이... 대학생특별할인...

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

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의 축제

별법의 휴식처 '캐슬클럽' OPEN

16세기 중세 유럽과 신대륙 탐험현장의 분위기를 장식한 클래식 스타일의 레스토랑에서 별법의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호반의 '강강' OPEN

단 둘이서 생애와 함께 취하고 모두 모여 신나는 댄스를 즐기자 - 첫 - 젊음의 휴식처 '강강'입니다.

축하 EVENT

- EVENT 1) SBS 신시대 콘서트
 - 5/27 가수 조경환과 신세대 연예인이 함께 꾸미는 축제 축하공연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호반무대
 - 이승환이바르콘서트 5/30 오후 6시 / 호반무대
- EVENT 2) "우리는 연인" 노래저장
 - 국내 최고의 레코딩인 정시가 진행하는 연인 노래저장 대회
 - 입상 연인 모두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 호반무대 5/24일 오후 1시 30분
- EVENT 3) 유니세프 유니버시티 콘서트
 - 연가대학의 인기 학생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자선비치기도 함께 합니다. * 호반무대
- EVENT 4) 대학보컬그룹 초청콘서트
 - 4곡, 불꽃(트리, 스기) 등 대학가요계 출신 정성품 보컬그룹이 연주하는 짜릿한 연주와 노래를 함께 즐기세요.
 - 5/23 토 / 오후 1시 / 호반무대
- EVENT 5) 워킹댄스 퍼레이드
 - 국내 최정상 이문진(연인) 흥행하여 특출한, 브레이크 댄스 시합공연과 함께 인디 디스코 퍼레이드도 참가됩니다.
 - 5/17, 31 오후 6시 / 호반무대 5/24일 오후 2시 30분
- EVENT 6) 사랑의 록콘쇼
 - 60년대 전세대를 무문은 열망의 슬라 록콘쇼를 무대로 꾸민다. 장문 뮤지컬 쇼와 함께 펼쳐 보세요. * 호반 토 일요일 오후 1시 / 호반무대
- EVENT 7) 대학생을 위한 사진작품전시회
 - 2000년, 동국대, 신성대학교, 이화여자, 한양대, 홍익대 등 4대 대학생들의 작품 전시회
 - 5/16-5/31 오전 10시부터 점심때까지 소문출 지하 1층

SPECIAL EVENT

MISS 월드 유니버시티 선발대회

92세계 대학생 미인대회에 참가할 한국대표 선발전 - 30여명의 미인들이 꾸미는 축제 한마당

5/24(일) 오후 6시 / 가든 스테이지

유지철 돈키호테

돈키호테와 산초가 보이는 순수한 인생 해학극

원작: 세르반테스

연출: 이상준

주연: 권병길, 남경주

전화예약문의: 411-4343

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

대학생특별할인권

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